

목포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가스공급 재개 합의

내일부터...60여일 만에 재개 이 대표, 오늘 사과 기자회견

목포시내버스가 가스비 체납으로 운영을 중단한지 60여 일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는 목포도시가스에 체납된 가스비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시내버스는 목포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가족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압축한 C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도시가스 회사 측이 가스비 체납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목

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운행이 멈춰섰다.

도시가스 회사 측은 체납액에 상당하는 담보물 제공을 요구했고, 태원·유진운수는 충전소와 이한철 대표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내버스의 가스비 체납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해 26억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회사 측은 장기간 멈춘 시내버스의 운행 준비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14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운영을 중단한지 65일만이다.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13일 목포상에서 운행중단에 따른 대시민 사과와 정상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된 지 두달여 만에 14일부터 정상화 된다. 목포시 제공

예정이다.

태원·유진운수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해 가스가 공급되지

라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15일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시정보고회·시민과 대화 추진 목포시, 내달 8일까지

목포시가 시정보고회·시민과 대화를 개최한다.

목포시는 오는 3월8일까지 1일 2개동씩 매주 3회에 걸쳐 23개동을 순회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8기 시책과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은 물론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접수된 시민정책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즉시 조치하고 예산 확보 등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반영할 예정이다. 신안군 읍·면 자매결연 단계를 초청해 양 시군 간 민간 차원 교류를 확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목포시, 불법주정차 등

목포시가 지난 9일부터 불법주정차와 택시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재활용 가능 자원 종량제 봉투 교환

목포시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을 일정량 모아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20 l) 1장의 교환 기준은 폐건전지는 500g(AA기준 20개), 종이팩은 500g(1000ml 17개), 투명페트병은 40개(용량 무관)이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펼쳐서 말려야 하며 투명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뚜껑을 단아야 한다. 폐건전지는 녹슬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목원동에 사랑나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청소년 200여명이 목원동에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지난 해 12월 '목포 청소년 사랑나눔콘서트' 티켓 수익금 120여만원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달 물품은 목도리 10개와 생필품 10상자, 화장지 30롤 10팩 등이다. 목포시 제공

청년 연령, 내년부터 39→45세로 상향

유창훈 시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 청년 연령 상향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된다.

목포시의회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최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향을 45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향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하는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년의 연령 상향을 45세로 개정 추진하면서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 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면

서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추가로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오늘부터 접수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녹스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로서 연소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감소 효과가 크다.

시는 올해 1500대(일반 1480대·저소득층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해당 지원액은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가정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중 2023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자이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보일러 공급자가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후환경과(트윈스타 4층)에 방문 및 등기우편(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 기후환경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일러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3월17일까지며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 증도면 이장협과 자매결연 목포시 연산동 통장협의회



목포시 연산동 통장협의회(회장 송관순)와 신안 증도면 이장협의회(회장 박춘근)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다짐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협약식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양 시군 축제에 함께하며 농특산물 직거래 등 상생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목포시 주전부리 3종(목화소뿔·비파 다쿠아즈·맛김새우칩) 등 양 지역 특산물을 소개했다.

박춘근 이장협의회장은 "농산물 직거래, 지역축제와 관광, 농촌일손돕기 등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초등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목포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목포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난해 11월 이행에 이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체류 중인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3월 중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축하금은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입학축하금이 신입생 가정의 교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재양성과 미래 꿈나무를 위한 교육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